

2014

연구보고서-25

I S S U E P A P E R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과제와 전망

수행과제명 • 취업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양육지원정책 연구
과제책임자 • 유희정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과제와 전망*

수행 과제명  취업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양육지원정책 연구

과제책임자  유희정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224

 e-mail: hjungyoo@kwidimail.re.kr

요약

본 이슈페이퍼는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이 정책의 우선 수요자인 0-5세 영유아를 둔 취업모를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였음. 나아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취업모를 지원하기 위한 우선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유희정·홍승아·김지혜·이슬·동제연·이향란(2014). 취업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양육지원정책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은 미래인재 육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저출산 현상 대응을 목표로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고자 추진됨. 그러나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은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요자 만족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은 시기별로 때로는 통합적으로, 때로는 부처에 따라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는 부처간 각각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 정책들에서는 각 정책의 중복 여부가 지적되고 있음.
- 사회적 육아지원 논의에서는 항상 맞벌이가구 지원 혹은 취업여성 지원이 우선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실제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낮 동안 가정에서 자녀양육이 가능한 경우와 맞벌이 가구 등 낮 동안 가정 내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각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정책환경의 차별성이 미흡하여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취업여성을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효율화 및 정책의 실효성 증진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우선 취업여성들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육아를 위한 지원정책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들이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지원받기 위하여 어떤 추가 요구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 있음. 또한 정부의 맞춤형 육아지원정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가. 취업여성 자녀양육 실태 및 요구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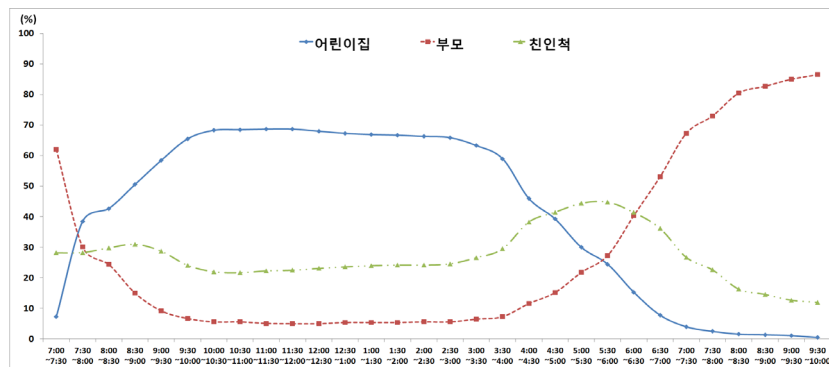
1) 자녀양육실태

가) 영아기 자녀양육 실태

-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여성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68.7%이며, 다음으로는 친·인척 돌봄이 53.0%로 나타남. 이들은 59.1%가 2가지 양육방식을 이용하고 있었고 3가지 양육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29.9%로 나타남.
- 본 조사에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먼저 오전 시간대를 살펴보면, 7시 30분까지는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62%로 가장 높았지만, 오전 9시 이후부터는 어린이집의 이용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반면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점차 감소함. 그러나 친·인척이 돌보는 비율은 약 1/5 정도임.
- 12시 이후 오후 시간대에는 오후 3시 30분을 기점으로 어린이집 이용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오후 5시 30분~6시 사이와 오후 6시~6시 30분 사이에는 각각 24.5%, 15.3%로 감소함. 반면에 이 시간대를 전후로 친·인척의 양육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최저 38.3%에서 최고 44.8%까지 나타남. 반면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증가하여 취업여성의 퇴근시간 전후부터 부모의 양육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함.

1) 본 조사는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실태를 파악하고자 전국 만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취업여성 5,209명을 대상으로 2014년 7월 2일~8월 14일(7주간)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CAWI :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및 구조화된 정량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의 결과중 일부임. 유희정, 홍승아, 이슬, 동제연(2014). 취업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양육지원정책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오후 6시 이후 늦은 오후 시간대에는 부모가 주로 돌보며, 친·인척이 돌보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또한 6시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비율은 15.3%에서 1% 수준으로 감소함. 이후 7시 30분 이후로는 부모 양육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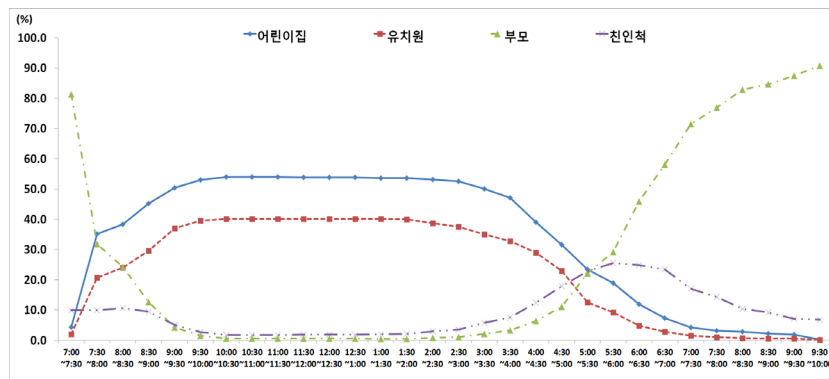
[그림 1] 시간대별 양육방식(영아)

나) 유아기 자녀양육 실태

- 유아기 자녀의 취업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는 양육유형은 크게 기관 이용과 개인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기관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는 것이 포함되고 개인의 형태에는 부모, 친·인척, 유급도우미, 아이돌보미가 돌보는 방식과 자녀들끼리 지내는 형태가 포함될 수 있음. 유아기 자녀가 부모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형태는 어린이집(54.2%)과 유치원(40.3%)이고, 다음으로 친·인척(36.4%)인 것으로 나타났음. 학원 이용비율도 24.3%로 나타남.
- 오전 시간대를 살펴보면, 7시 30분까지는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81.3%로 가장 높았지만, 오전 8시 이후부터는 어린이집의 이용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점차 감소함. 유치원 이용은 어린이집보다는 다소 늦은 시간부터 집중되기 시작하여 오

전 9시~10시 사이부터 유아들의 이용률이 높아짐. 친·인척 돌봄 비율은 오전 시간대에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하원시간을 전후한 오후 시간대에 20% 수준으로 나타남.

- 12시 이후 오후 시간대에는 오후 4시 30분을 기점으로 이용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오후 5시 30분~6시 사이에는 18.9%로 감소함.
- 오후 6시 이후 늦은 오후 시간대에는 부모가 주로 돌보며, 친·인척이 돌보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또한 6시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비율은 11.93%에서 2% 수준으로 감소함. 이후 8시 이후로는 부모 양육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남.



[그림 2] 시간대별 양육방식(유아)

2) 자녀양육 요구

- 취업여성 육아지원정책에서의 주요 문제점은 육아지원정책이 취업 여성 자녀와 비취업여성 자녀를 구분하지 않고 양육을 지원해 온 점임. 비취업여성 중심의 단시간 자녀양육지원이 일반 유형이 되면서 취업여성 대상의 장시간 자녀양육지원서비스 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취업여성들이 직장의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충분한 자녀양육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늦은 오후 시간부터는 별도의 비용을 투

입하여 추가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밖에 없음.

- 그 대안으로 시부모, 친정부모 등의 친·인척 활용이 가장 많음. 그리고 이 경우는 대체적으로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야만 하므로 결혼 초기의 부모들은 이러한 비용이 부담이 됨. 된다고 말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들조차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취업여성들은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퇴직에 이름.
- 취업여성들의 추가적 지원 요구는 자녀 연령에 따라 영아자녀를 둔 경우에는 육아휴직제도 사용 실효성 증진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기타 육아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음.
- 자녀가 1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비용 지원, 원활한 육아휴직제 사용과 더불어 이용하기에 편리한 양질의 보육/교육기관 확충을 요구하기 시작함. 자녀연령이 2세가 되면서부터는 양질의 보육/교육기관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기관 확충에 대한 요구가 비용지원보다 더 높게 요구되고 있음. 3~5세 유아 자녀를 둔 취업여성들은 기관이 징수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나.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 개괄

1) 기관 현황

가) 어린이집 현황

- 어린이집은 2013년 12월 현재 43,770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어린이집 개소 수는 2002년(22,147개소)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시설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의 증가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1〉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현황

(단위: 명(%))

연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비고 (증가수)
2002	103,351 (12.9)	142,035 (17.7)	455,936 (56.9)	90,939 (11.4)	-	8,730 (1.1)	800,991 (100.0)	-
2003	103,474 (12.1)	140,994 (16.4)	499,551 (58.2)	103,935 (12.1)	-	10,391 (1.2)	858,345 (100.0)	57,354
2005	111,911 (11.3)	125,820 (12.7)	608,734 (61.5)	129,007 (13.0)	933 (0.1)	12,985 (1.3)	989,390 (100.0)	131,045
2008	123,405 (10.9)	113,894 (10.0)	669,465 (59.0)	210,438 (18.5)	1,491 (0.1)	16,809 (1.5)	1,135,502 (100.0)	146,112
2010	137,604 (10.8)	114,054 (8.9)	723,017 (56.5)	281,436 (22.0)	1,898 (0.1)	21,901 (1.7)	1,279,910 (100.0)	144,408
2011	143,035 (10.6)	112,688 (8.4)	757,323 (56.2)	308,410 (22.9)	2,286 (0.2)	24,987 (1.9)	1,348,729 (100.0)	68,819
2012	149,677 (10.1)	113,049 (7.6)	820,170 (55.1)	371,671 (25.0)	2,913 (0.2)	29,881 (2.0)	1,487,361 (100.0)	138,632
2013	154,465 (10.4)	108,834 (7.3)	821,863 (55.3)	364,113 (24.5)	3,226 (0.2)	34,479 (2.3)	1,486,980 (100.0)	△381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3 보육통계」.

나) 유치원 현황

- 교육부가 관장하는 유치원은 2013년 현재 전국에는 8,678개소의 유치원이 설립되어 있음.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 유치원은 52.7%, 사립 유치원은 47.3%로, 국공립 유치원 수가 지난 2002년 이후 계속 50% 이상을 차지하며 사립 유치원 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 2010년 이후 전국 유치원 중 국공립 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2〉 연도별 시설유형별 유치원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사립	전체
2002	4,240 (50.8)	4,103 (49.2)	8,343 (100.0)
2010	4,501 (53.7)	3,887 (46.3)	8,388 (100.0)
2011	4,502 (53.4)	3,922 (46.6)	8,424 (100.0)
2012	4,525 (53.0)	4,013 (47.0)	8,538 (100.0)
2013	4,577 (52.7)	4,101 (47.3)	8,678 (10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4), 교육통계서비스(<http://std.kedi.re.kr/index>), 교육기본 통계.

2) 영유아 현황

● 보육영유아 및 유치원 이용 유아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

〈표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 수(2005~2013년)

(단위: 명, %)

구분		영유아 전체수 (a)	어린이집 이용수 (b)	유치원 이용수 (c)	소계 (b+c)	어린이집 이용비율 (b/a)	유치원 이용비율 (c/a)	전체대비 이용률 (b+c/a)
2013	0세	421,465	148,273	-	-	35.2	-	35.2
	1세	486,655	325,921	-	-	67.0	-	67.0
	2세	474,098	400,781	-	-	84.5	-	84.5
	0-2세 소계	1,382,218	874,975	-	-	63.3	-	63.3
	3세	472,047	255,786	143,069	398,855	54.2	30.3	84.5
	4세	447,055	184,513	233,926	418,439	41.3	52.3	93.6
	5세	467,935	161,877	277,826	439,703	34.6	59.4	94.0
	3-5세 소계	1,387,037	602,176	654,821	1,256,997	43.4	47.2	90.6
	0-5세 소계	2,769,255	1,477,151	654,821	2,131,972	53.3	23.6	77.0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https://gsis.kwdi.re.kr/>); 보건복지부(2014), 『2013보육통계』; 교육부(2014), 『교육통계』; 유희정·마경희·김소영(2013),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른 재정운영 비교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16~18.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2005년도 48.3%에서 2013년도 77.0%로 대폭 상승하였음. 영유아별로 0~2세 영아는 2005년도 22.0%에서 2013년도 63.3%로 2.9배 증가하여 증가폭이 컸으며, 3~5세 유아는 2005년도 69.8%에서 2013년도 90.6%로 1.3배 상승하였음. 따라서 유아 대비 영아의 기관이용률 증가폭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음.

3) 정부 예산 지원 및 영유아 1인당 비용

가) 정부지원 증예산

- 정부가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에 투입하는 비용을 비교해보면 영아와 유아 즉, 영유아의 연령, 그리고 이용기관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알 수 있음.

〈표 4〉 연도별 보육과 유아교육 예산

(단위: 억원, %)

구분		국비	지방비	계	GDP대비 비율*
2008	보육	14,678	15,300	29,978	0.271
	유아교육	2	10,119	10,121	0.092
	계	14,680	25,419	40,099	0.363
2010	보육	21,275	21,614	42,889	0.339
	유아교육	4	12,355	12,359	0.098
	계	21,279	33,969	55,248	0.437
2012	보육	30,286	31,040	61,326	0.445
	유아교육	-	20,608	20,608	0.150
	계	30,286	51,648	81,934	0.595
2013	보육	41,313	42,882	84,195	0.589
	유아교육	-	25,982	25,982	0.182
	계	41,313	68,864	110,177	0.771
2014	보육	45,446	40,244	85,690	-
	유아교육	-	54,000	54,000	-
	계	45,446	94,244	139,690	-

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연도별 명목 GDP 기준, 1,104.50조원(2008), 1,151.70조원(2009), 1,265.30조원(2010), 1,332.70조원(2011), 1,377.50조원(2012), 1,428.30조원(2013). (2014년 6월 현재 새 국민계정체계(2008 SNA) 기준을 적용해서 공개한 잠정 명목GDP). 2013, 2014년도 지방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 (교부금 2013년도 11,759억원, 2014년도 36,173억원).

- 육아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보육과 유아교육예산을 합했을 때 2008년도 4조원이던 정부예산은 2010년도 5조 5,248억원, 2012년도 8조 1,934억원, 2013년도 11조 177억원, 2014년도 13조 9,69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2014년도 13조 9,690억원 중 보육예산은 8조 5,690억원, 유아교육예산은 5조 4천억원 수준임.

나) 영유아 1인당 비용

- 영유아 1인당 투입비용은 우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투입되는 비용을 살펴보면,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에서는 영아 1인당 0세 1,020,944원, 1세 735,222원, 2세 571,912원이 지원됨.

〈표 5〉 인건비 지원(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2014)

(단위: 원)

구분	보육료	인건비		누리과정	계	
		교사	교사+원장		원장 미포함	원장 포함
만0세아	394,000	596,805	626,944	-	990,805	1,020,944
만1세아	347,000	358,083	388,222	-	705,083	735,222
만2세아	286,000	255,774	285,912	-	541,773	571,912
만3세아	220,000	67,052	97,191	70,000	357,052	387,191
만4~5세아	220,000	50,289	80,428	70,000	340,289	370,428

주: 인건비지원시설(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 산출은 정부 기준 보육료와 보육교사 5호봉 인건비, 시설장 인건비 5호봉을 기준으로 산출(사대보험 지원 포함). 취사부 및 기타인력 인건비는 미적용. 야간보육 지원, 24시간보육 지원 미적용. 원장 처우개선비 195천원, 교사 처우개선비 145천원 및 수당(영아교사 150천원, 유아교사 300천원) 적용

- 민간어린이집은 만0세아 871,667원, 만1세아 591,000원, 만2세아 451,000원, 만3세아 32,333원, 만4~5세아 315,000원이고, 국공립대비 비율은 80~85%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6〉 인건비미지원(민간, 가정)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2014)

(단위: 원, %)

구분	보육료	기본보육료	수당	누리과정	계(원)	국공립 대비 비율(%)
만0세아	394,000	361,000	116,667	-	871,667	85.38
만1세아	347,000	174,000	70,000	-	591,000	80.38
만2세아	286,000	115,000	50,000	-	451,000	78.86
만3세아	220,000	-	33,333	70,000	32,3333	83.51
만4·5세아	220,000	-	25,000	70,000	315,000	85.04

- 유치원 원아 1인당 월평균 투입 비용은 국·공립유치원은 만3세 668,659원, 만4세 659,640원, 만5세 이상 656,705원임. 사립유치원은 만3세 537,269원, 만4세 535,926원, 만5세 이상 535,943원임. 즉,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교육비는 월평균 약 66만원,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교육비는 월평균 약 53만원이 투자되고 있음.

〈표 7〉 유치원 원아 1인당 월별 교육비 현황(2014. 8)

(단위: 원)

연령	국·공립						사립					
	유치원 수	입학, 교육비(월)					유치원 수	입학, 교육비(월)				
		입학·졸업 (①)	교육 과정 (②)	방과후 과정 (③)	교직원 인건비 (④)	소계 (①+②+③+④)		입학·졸업 (①)	교육 과정 (②)	방과후 과정 (③)	교원처우 개선비(④)	소계 (①+②+③+④)
만3세	3,061	634	188,137	134,366	345,521	668,659	3,809	11,610	377,692	119,539	28,428	537,269
만4세	4,083	748	180,120	133,251	345,521	659,640	3,966	11,220	376,156	120,123	28,428	535,926
만5세 이상	4,406	1,373	177,884	131,926	345,521	656,705	3,962	11,253	376,002	120,259	28,428	535,943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4). “유치원 2014년 8월 정기 정보공시, 유치원 교육비 현황 공개”(2014. 8. 29(금)). 13쪽.

- 영유아 지원 비용은 0~2세 대상과 3~5세 대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0~2세 대상 지원으로는 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어린이집 이용시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에서는 영아 1인당 0세 1,020,944원, 1세 735,222원, 2세 571,912원이 지원됨.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0세 871,667원, 1세 591,000원, 2세 451,000원이 지원됨.

〈표 8〉 육아지원정책 개괄

구분	보육정책	유아교육정책	양육수당지원	아이돌봄지원
근거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영유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0-5세(2013)¹⁾ : 1,477,15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세(2013)²⁾ : 654,82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0-5세(2013) : 1,060,484명 	〈2013 연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0-5세: 1,337,802명 6-8세: 394,404명 9-12세: 150,366명
기관수	43,770개소(2013)	8,678개소(2013)	-	-
영유아 1인당 보육 비용	영아	-	〈전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0세: 200,000원 1세: 150,000원 2세: 100,000원 3-5세: 100,000원 	〈시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당 1,250원에서 4,250원 지원 〈영아종일제: 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45-75만원 지원 〈영아종일제: 1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40-70만원 지원
	〈국공립,법인(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0세: 1,020,944원 1세: 735,222원 2세: 571,912원 	-	〈농어촌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0세: 200,000원 1세: 177,000원 2세: 156,000원 3세: 129,000원 4-5세: 100,000원 	
	〈민간,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0세: 871,667원 1세: 591,000원 2세: 451,000원 	-	〈장애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0-2세: 200,000원 3-5세: 100,000원 	
	〈국공립,법인(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 387,191원 4-5세: 370,428원 	〈국공립(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 668,659원 4세: 659,640원 5세: 656,705원 	〈사립(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 537,269원 4세: 535,926원 5세: 535,943원 	
비고	전액 정부 부담	학부모부담 및 정부지원	전액 정부 부담	소득기준에 따라 가,나,다,라형으로 차등지원

주: 1) 6세 이상 유아 9,829명 제외
2) 6세 이상 유아 658명 제외

- 유아대상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시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에서는 유아 1인당 지원액이 3세는 387,191원, 4~5세 370,428원이 지원됨.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유아 1인당 지원액이 3세는 323,333원, 4~5세 315,000원이 지원됨. 유치원은 국·공립인 경우 3세 668,659원, 4세 659,640원, 5세 656,705원이 지원됨. 사립유치원은 3세 537,269원, 4세 535,926원, 5세 535,943원이 지원되어 정부의 육아 지원은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그리고 이용기관의 유형에 따름을 알 수 있음.

3 정책제언: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과제와 전망

- 육아지원정책이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경제활동참가 등의 이유로 주로 낮 동안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정부나 사회가 이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해 주는 정책임. 그러나 육아지원정책은 현재 정책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취업여성들을 적절하게 지원하는데 미흡함.
- 현재의 자녀양육지원 서비스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라기보다는 자녀양육지원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추어 취업여성들이 이를 이용한다는 점임. 그리고 취업여성들은 근무시간과 비교하여 공적 자녀양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늦은 오후 시간부터는 별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추가적인 방법을 활용함. 나아가 비용 등의 문제로 추가적인 방법 활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 취업여성들은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안1) 취업모 자녀 현황 추계

- 취업여성의 0~5세 자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제4차 여성가족패널조사』원자료를 분석하여 영아

및 유아의 모 고용률을 알아보려고 하였음. <표 9>를 살펴보면 0세아 취업여성 자녀비율은 20.5%로 나타났으며, 1세아 취업여성 자녀비율은 29.0%, 2세아 31.0%, 3세아 33.5%, 4세아 32.8%, 5세아 43.1%로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여성 자녀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0~5세 자녀를 가진 취업여성 자녀비율의 전체 평균은 34.7%임. 자녀가 초등학교 1~4학년(만6~9세)인 경우 취업여성 자녀비율은 41~43% 수준을 유지하다가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취업여성 자녀비율은 50%대로 상승하게 됨을 알 수 있음.

〈표 9〉 0~11세 아동 중 취업여성 자녀 비율(2012년)

(단위: 명, %)

구분		인구수 ¹⁾ (A)	만0~11세 자녀 수 ²⁾			연령별 취업여성 자녀비율 (E=C/B*100)
			전체(B)	취업여성 자녀(C)	비취업여성 자녀(D)	
0-5세	0세	464,374	78	16	62	20.5
	1세	472,275	124	36	88	29.0
	2세	470,956	155	48	107	31.0
	3세	446,256	176	59	117	33.5
	4세	467,432	229	75	154	32.8
	5세	494,810	357	154	203	43.1
	0-5세	2,816,103	1,119	388	731	34.7
6-11세	6세	449,057	321	138	183	43.0
	7세	435,863	305	122	183	40.0
	8세	474,009	390	169	221	43.3
	9세	493,679	365	151	214	41.4
	10세	495,216	355	179	176	50.4
	11세	559,908	396	204	192	51.5
	6-11세	2,907,732	2,132	963	1,169	45.2
계(0-11세)		5,723,835	3,251	1,351	1,900	41.6

주: 1)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2012년 0~11세 연령별 인구수.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 『제4차 여성가족패널조사』원자료 분석. 패널 응답자의 0~11세 자녀의 수. 2014년에 공표된 4차 패널데이터의 조사기준 시점은 2012년임.

- 취업여성 자녀비율은 자녀연령에 따라 자녀연령 0세에서 취업여성 자녀비율이 최하위이고 자녀가 발달적으로 독립적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논의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즉, 자녀연령이 만10세가 되어서야 취업여성들은 일반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한 영아(0~2세)의 취업여성 자녀비율은 49.5%, 유아(3~5세)의 취업여성 자녀비율은 50.2%임. 총 보육영유아수에 취업여성 자녀비율을 적용, 산출한 어린이집 이용 취업여성 자녀수는 0세 43,313명, 1세 141,278명, 2세 199,050명, 3세 132,164명, 4세 95,179명, 5세 82,477명임.

〈표 10〉 보육영유아 중 취업여성 자녀수 추계

(단위: 명)

연령	보육영유아	취업여성 자녀비율	취업여성 자녀수 추정치
0세	87,503	49.5	43,313
1세	285,412	49.5	141,278
2세	402,232	49.5	199,050
3세	263,275	50.2	132,164
4세	189,600	50.2	95,179
5세	164,298	50.2	82,477

자료: 1)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2)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통계』.
 3) 이미화·최윤경·유해미·이혜민(2013), 『보육·유아교육 통합 관련 학부모 인식조사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취업여성 자녀수가 880,950명으로 추계되고, 어린이집 이용 보육영유아 중 취업여성 자녀수가 693,461명이라면, 나머지 취업여성의 자녀 187,489명은 유치원을 이용하거나, 다른 프로그램 이용, 혹은 친인척 등의 도움으로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표 11〉 0~5세 영유아 중 취업여성 자녀수 추계

(단위: 명)

	구분	0~5세인구수 (2013)	취업여성 자녀수 추정치 ¹⁾	어린이집 이용취업여성 자녀수 추정치 ²⁾
0-2세	0세	421,465	86,400	43,313
	1세	486,655	141,130	141,278
	2세	474,098	146,970	199,050
	소계(0-2세)	1,382,218	374,500	383,641
3-5세	3세	472,047	158,136	132,164
	4세	447,055	146,634	95,179
	5세	467,935	201,680	82,477
	소계(3-5세)	1,387,037	506,450	309,820
계(0-5세)		2,769,255	880,950	693,461

주: 1) 취업여성 자녀수 추정치: 2013년도 연령별 주민등록인구수×여성가족패널 자료를 통한 연령별 모 취업률 반영

2) 어린이집 이용 취업여성 자녀수 추정치: 2013년도 연령별 보육영유아×보육실태조사에 의한 영·유아 취업여성 자녀비율 반영.

제안2) 취업모 지원 육아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을 분리한 정책 설계 및 추진 필요

● <표 12>를 살펴보면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자녀양육형태가 확연히 다름. 부모들이 낮 시간 동안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실태를 살펴보면 취업여성들은 비취업여성들에 비하여 기관이용률이 높고, 기관이용에서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에서는 장시간 이용의 특징을 나타내었음. 또한 취업여성들은 비취업여성들에 비하여 혈연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높아 이용비율이 3.5%대 29.5%로 월등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2〉 비취업여성과 취업여성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단위: %)

구분	비취업여성							취업여성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07:00-07:30	-	-	97.4	-	-	0.9	-	0.5	-	87.5	-	-	10.4	1.1
07:31-08:00	0.1	0.2	98.4	-	-	1.3	-	2.8	0.7	80.7	-	-	14.3	1.4
08:01-08:30	1.9	1.7	94.3	0.1	-	2.0	-	14.4	4.8	57.9	0.1	-	20.9	2.0
08:31-09:00	8.4	7.6	80.6	1.6	-	1.8	-	32.6	15.9	31.8	1.1	-	16.3	2.3
09:01-09:30	23.3	17.3	55.0	3.0	-	1.2	-	45.0	24.0	13.9	3.5	-	11.6	1.9
09:31-10:00	33.9	21.4	39.6	3.8	0.2	1.0	-	52.0	28.9	6.4	4.1	-	7.2	1.4
10:01-10:30	38.0	21.8	34.8	4.0	0.3	1.1	0.1	54.3	29.0	3.9	4.1	0.4	6.7	1.5
13:31-14:00	37.8	21.7	35.0	4.0	0.2	1.4	-	54.9	29.0	2.5	4.1	0.1	7.7	1.6
14:01-14:30	37.4	18.6	37.3	3.8	1.4	1.5	-	54.6	28.4	2.9	3.7	0.5	8.1	1.7
14:31-15:00	36.2	15.9	41.6	2.9	1.8	1.5	-	53.8	26.9	3.5	3.6	1.3	9.0	1.9
15:01-15:30	32.3	12.1	48.2	2.1	3.3	2.0	-	52.2	24.7	4.7	1.8	4.1	10.2	2.2
15:31-16:00	27.2	9.0	56.2	1.2	4.1	2.2	-	49.1	22.9	7.4	1.3	5.0	12.2	2.3
16:01-16:30	17.3	6.6	68.5	0.5	4.7	2.3	0.1	43.4	18.3	12.4	1.2	6.1	15.9	2.6
16:31-17:00	11.3	4.5	76.9	0.3	4.4	2.4	0.2	37.6	14.9	17.3	1.0	6.9	19.3	3.0
17:01-17:30	5.8	2.5	84.1	0.3	3.8	3.3	0.2	25.7	8.9	27.0	0.5	8.0	26.9	3.1
17:31-18:00	3.1	1.1	89.0	-	3.2	3.5	0.1	20.2	6.2	35.5	0.2	6.3	28.3	3.2
18:01-18:30	0.9	0.3	93.5	-	2.1	3.1	-	10.7	2.8	51.2	0.1	3.0	29.5	2.7
18:31-19:00	0.4	-	95.7	-	1.1	2.8	-	4.6	1.2	66.0	0.1	1.0	24.4	2.7
19:01-19:30	0.2	-	97.6	-	0.3	1.9	-	2.3	0.7	78.6	-	0.2	16.4	1.7
19:31-20:00	0.1	-	98.2	-	-	1.7	-	1.2	0.4	82.9	-	-	14.1	1.4
20:01-20:30	-	-	98.5	-	-	1.5	-	0.7	-	90.1	-	-	8.4	0.9
20:31-21:00	-	-	98.6	-	-	1.4	-	0.2	-	92.9	-	-	6.4	0.5
21:01-21:30	-	-	99.4	-	-	0.6	-	0.2	-	94.3	-	-	5.2	0.3
21:31-22:00	-	-	99.5	-	-	0.5	-	0.2	-	94.8	-	-	4.9	0.1
22:01-22:30	-	-	99.5	-	-	0.5	-	-	-	95.5	-	-	4.5	-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2),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p98.

- 비취업여성들의 어린이집 이용은 대체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유치원 이용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임.

그러나 취업여성들은 어린이집 이용이 오전 8시경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 이용시간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음. 유치원 이용 역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임. 혈연이용은 비취업여성들의 경우 1~3% 수준이나 취업여성들은 15~30% 수준임.

● <표 12>를 살펴보면 사회적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취업여성들과 비취업여성들의 이용실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취업여성, 비취업여성의 자녀 구분 없이 단일 유형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함. 즉, 동일한 비용이라면 기관운영자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운영을 선호함. 특히 민간 점유율이 높은 상태에서 민간기관들이 짧은 시간 운영을 선호할 때 제제가 어려움. 그 결과 단시간 운영이 안착되어 취업여성들이 적절한 육아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회적 문제인 여성 경력단절이 발생하게 됨. 육아지원 정책이란 이용자 특성에 따라 취업여성의 근로시간에 기준하는 육아지원서비스와 비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대적 단시간 육아지원서비스가 구분되어 제공되어야 함.

● 대안으로는 취업여성 자녀와 비취업여성 자녀를 구분하여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시간을 맞춤형으로 운영하여야 함.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오후 3시 반에서 4시 반까지 운영되는 비취업여성 자녀 대상 육아지원서비스를 일반 모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본형으로 함. 그 다음은 취업여성의 육아지원요구를 분석하여 대부분의 취업여성들이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대 즉, 오후 8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모형을 정책화하여 안착시킴.

시간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기본 보육	기본(8시간)												
연장 보육										추가(4시간 이상)			

- ① 기본형 : 오전 8시 반경부터 오후 4시반 정도까지 하루 8시간 정도 자녀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비취업여성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됨. 혹은 자녀연령에 따라 영아대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됨.
- ② 연장형 : 오전 7시반경부터 오후 9시반정도까지(14시간) 운영되며, 취업 여성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데 주목적이 있음. 단, 시간연장 프로그램 이용자는 시간연장이 필요한 이유 확인이 필수 조건임²⁾.

■ 비용에 대한 합리적 지원 관리

- 취업여성들은 육아지원기관/인력/프로그램 이용시 소요되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육아지원기관/인력/프로그램 이용비용

(단위: 만원)

구분	영아		유아		초등	
월평균 비용	41.2		40.4		40.4	
내역 (우선 순위)	1순위: 유급도우미	(105.9)	1순위: 유급도우미	(96.7)	1순위: 유급도우미	(77.6)
	2순위: 친·인척	(57.6)	2순위: 친·인척	(42.0)	2순위: 학원	(31.5)
	3순위: 학원	(31.8)	3순위: 학원	(25.5)	3순위: 친·인척	(30.6)
	4순위: 아이돌보미	(24.1)	4순위: 아이돌보미	(23.2)	4순위: 아이돌보미	(23.8)
	5순위: 유치원	(21.8)	5순위: 유치원	(19.8)	5순위: 방과후 학교	(9.1)
	6순위: 어린이집	(9.2)	6순위: 어린이집	(15.1)	6순위: 청소년아카데미	(6.5)

- 2) 현재 운영중인 유치원 사례를 살펴보면 하루일과는 운영 시간대에 따라 ‘아침돌봄’, ‘유치원정규과정’, ‘유치원 방과후 과정/유치원 종일반/오후 돌봄’, ‘저녁돌봄’ 등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짐.

시간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10
과정	오전 엄마품		정규수업					오후돌봄, 방과후과정			저녁엄마품				
교사 배치	오전 엄마품교사 1인		정규교사 배치					종일반 (방과후) 교사 별도 배치			저녁엄마품 교사 1인				

- 월평균 소요비용을 살펴보면 자녀연령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대체적으로 월평균 4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자녀연령에 따라 지출내역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영아의 경우 지출비용은 유급도우미 지출비용이 월평균 105.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친·인척지출비용(57.6만원), 학원(31.8만원), 아이돌보미(24.1만원), 유치원(21.8만원), 어린이집(9.2만원) 순이었음.
- 중요한 점은 사회적 육아지원기관들이 취업여성들의 운영시간 요구를 수렴하여 이용 가능한 시간연장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제공하였더라면, 취업여성들이 육아도우미, 학원, 친·인척 이용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임.
- 또한 정부는 현재 영유아 육아지원과 관련하여 무상보육/무상유아교육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무상보육/무상유아교육이 의미하는 정부지원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로써 보육료/유치원원비 지원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추가비용 징수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육아지원 사각지대, 오후8시 전후까지 야간돌봄지원 요구

- 취업여성 지원 육아지원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취업여성들의 근로환경 파악을 포함하여 이들의 육아지원요구에 집중하여야 함. 주목할 점은 육아지원기관들의 하원시간과 모퇴근시간의 불일치 현상임.
- 영아육아를 위한 기관이용 실태를 요약하면 영아들의 등원시간과 모출근시간은 크게 어긋나지 않음. 그러나 취업여성들이 대체적으로 오후6시 이후에 퇴근을 하며 특히 오후6시반 이후 퇴근자가 50.6%에 달하지만 육아지원기관들은 오후3시반부터 영아들을 하원시키기 시작하여 오후5시가 되면 영아의 13%만이 기관에 남아있는 상황임. 이러한 추세는 취업여성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빨리 데려가라고 재촉하는 결과로 이어져 취업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표 14〉 영아 육아형태 요약

(단위: 명(%))

구분	전체		결과			
주요이용기관	742	(100.0)	어린이집	(68.7%)	친·인척	(53.0%)
이용기관 개수	742	(100.0)	2개	(59.1%)	3개 이상	(30.7%)
등원시간	509	(100.0)	오전 7:30~8:00	(45.5%)	오전 8:30~9:00	(11.6%)
모 출근시간	509	(100.0)	오전 8:00~8:30	(30.1%)	오전 7:30~8:00	(16.7%)
하원시간	509	(100.0)	오후 3:30~4:00	(18.9%)	오후 4:30~5:00	(13.6%)
모 퇴근시간	509	(100.0)	오후 6시 이후	(66.5%)		
			오후 6시 30분 이후 (50.6%)	관리자·전문가	(47.1%)	
				사무종사자	(56.4%)	
				서비스·판매종사자	(54.7%)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2.5%)	
				기능·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29.4%)	

● 유아 역시 기관 이용시 등원시간과 모 출근시간은 크게 어긋나지 않았음. 그러나 취업여성들 중 오후6시 이후 퇴근자가 55.2%에 달하는데 반하여 육아지원기관들은 오후3시반부터 유아들을 하원시키기 시작하여 오후5시가 되면 영아의 15.1%만이 기관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음.

● 이상에서와 같이 정부가 제공하는 취업여성들을 위한 육아지원정책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음. 즉, 영유아의 경우 오후 4시반 이후 취업여성들이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오후8시 전·후까지 적절한 육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취업여성들은 개인적으로 육아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 이에 대한 대책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영아에 대한 가정 내 양육지원 방안 모색

● 영아는 발달 특성상 어떤 관점에서는 가정에서의 양육이 바람직하

기도 함. 이를 반영하듯 취업여성들은 유아연령 이상에서는 양질의 기관을 통한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녀가 영아인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부모의 직접적인 육아를 선호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은 육아휴직제도의 원활한 사용이나 양육수당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음.

- 0~1세 영아시기는 안정적 애착이 결정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로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라 할지라도 자녀가 출생이후 1~2년간은 부 혹은 모가 육아를 담당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양육수당, 아이돌보미정책 등을 지원하여 부 혹은 모의 여건이 가능한 한 가정내 부모 양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은 제도³⁾는 잘 마련되어 있으나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기업에서는 육아휴직제도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실효성 증진 방안

■ 단순노무종사자와 같이 휴일근로 취업여성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일부 직종에서는 직종 특성상 정규근로시간 혹은 휴일·휴무 개념 없이 일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들 직종 근로 취업여성들은 이에 대응하는 종일, 24시간 혹은 휴일 자녀양육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그리고 현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은 어린이집에서의 시간연장보육이나 휴일보육임.
- 어린이집 원장들은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을 실시할 경우 원아가 원에 나와 있는 동안에는 원장들도 함께 출근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함. 정규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

3)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육아휴직제도’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여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은 22.6%(2012년 기준)를 차지했음. 이는 비교대상국인 OECD 회원국 24곳 가운데 스페인(7.2%), 영국(11%)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임. 반면 핀란드와 프랑스는 각각 100%, 99%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대해 임은주 한국노총 여성본부 고용평등국장은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제도는 일부 대기업에서만 적용될 뿐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서는 거의 사용할 수 없다”며 “여성들은 회사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물론, 대체인력이 없어 직장을 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음(천지일보 2014.10.20).

하여 대체교사를 활용하는 경우 역시 교사와 영유아들이 친해지기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므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함. 따라서 단순노무종사자와 같이 휴일 근로 취업여성들을 위한 자녀양육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 어린이집의 휴일보육 혹은 아이돌보미 활용 등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함.

4 기대효과

- 취업여성 대상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취업여성들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육아실태 파악
 - 취업여성들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육아 요구 파악
 - 수요자 맞춤형 정책 제공으로 수요자 만족도 증진
 - 취업여성 및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진
- 육아지원 서비스 통합방안 제시
 - 육아지원정책의 부처 통합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 증진
 - 육아지원정책 사각지대 파악
- 일-가정양립 환경 제공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관계부처 : 청와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